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세대별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비교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김민지

초 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세대별 자영업 진입 결정 요인을 살펴본다. 한국 남성 노동시장 참여자를 35세 이하의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비근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실증 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나이, 대학교육, 부모의 자영업 경험, 거주목적 이외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은 청년 층과 중장년 층의 자영업 진입 결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상대적 고용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태 모형을 도입하였으며, 청년 층에서는 임금 근로자가, 중장년층에서는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을 지속함을 밝혔다.

주요어 : 자영업, 청년 노동시장, 중·장년 노동시장, Multinomial Logit Model

학 번 : 2014-22288

목 차

제 1 장 서 론	4
제 2 장 연구의 배경	6
제 1 절 국가 간 자영업 현황 비교	6
제 2 절 국내 자영업 현황	7
제 3 장 선행 연구	11
제 4 장 데이터와 기초통계량	14
제 1 절 분석 데이터 소개	14
제 2 절 기초 통계량	15
제 5 장 모형과 분석 결과	23
제 1 절 실증 분석 모형	23
제 2 절 정태 모형 분석 결과	24
제 3 절 동태 모형 분석 결과	29
제 6 장 결 론	32
참 고 문 헌	33
Abstract	35

표 1	연령별 취업자 및 자영업 종사자 비율.....	9
표 2	대표자 연령별 활동, 신생, 소멸하는 개인사업체 수.....	10
표 3	직업 상태 별 표본 수.....	17
표 4	직업 상태별 전환 비율 (T-1기 기준).....	17
표 5	직업 상태별 전환 비율 (T기 기준).....	18
표 6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21
표 7	세대별, 직업 상태별 산업 구분.....	22
표 8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1.....	27
표 9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2.....	28
표 10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3.....	30
표 11	다항 로짓 모형의 한계 효과.....	31
표 12	다항 로짓 모형의 직업 전환 예측 비율.....	31
그림 1	OECD 가입국의 2013년 1인당 GDP 대비 자영업자 비율.....	7
그림 2	개인사업체 대표자 산업별 비율.....	10

제 1 장 서 론

이 연구는 한국 노동 시장에서 남성 근로자가 임금 노동 대신 자영업을 선택할 때, 자영업 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자영업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금 근로와 비교했을 때, 소득의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서 자영업을 선택할 유인은 크지 않다.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수익률과 잦은 폐업을 경험한다. 또 자영업 종사자는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체의 경영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므로 임금 근로자에 비해 생활 수준을 꾸준히 보장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 내 취업자 중 20~30% 가량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노동 시장 참여자의 나이에 따라 자영업 종사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2013년 OECD에서 발간한 청년과 고령자의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의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영업 종사 비율은 평균 4%으로 매우 낮은 반면, 65세 이상 인구에게는 자영업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60세 이상 인구의 자영업자 비율이 30세 이하 인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조한 수준의 청년 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갖추고 있다.^①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 참여자를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로 나누고, 이들의 자영업 진입에 관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자가 비-근로, 임금 근로 또는 자영업이라는 대안 중 하나를

^① 서울시 일자리지원센터 웹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시 창업스쿨은 다양한 자금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청년 전용의 창업 자금 지원 또는 보증 지원 제도를 별개로 마련하고 있다.

선택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세 직업 상태간의 전환 행렬을 구하고, 표본의 나이, 교육 수준, 가족의 소득과 자산 수준, 과거의 직업 경력 등을 설명 변수로 삼는 다항 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자영업 진입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국내외 자영업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영업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요약, 정리한다. 4장에서는 자영업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하고, 표본의 기초 통계량을 분석한다. 5장에서 계량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결과를 해석한 후, 6장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제 2 장 연구의 배경

제 1 절 국가 간 자영업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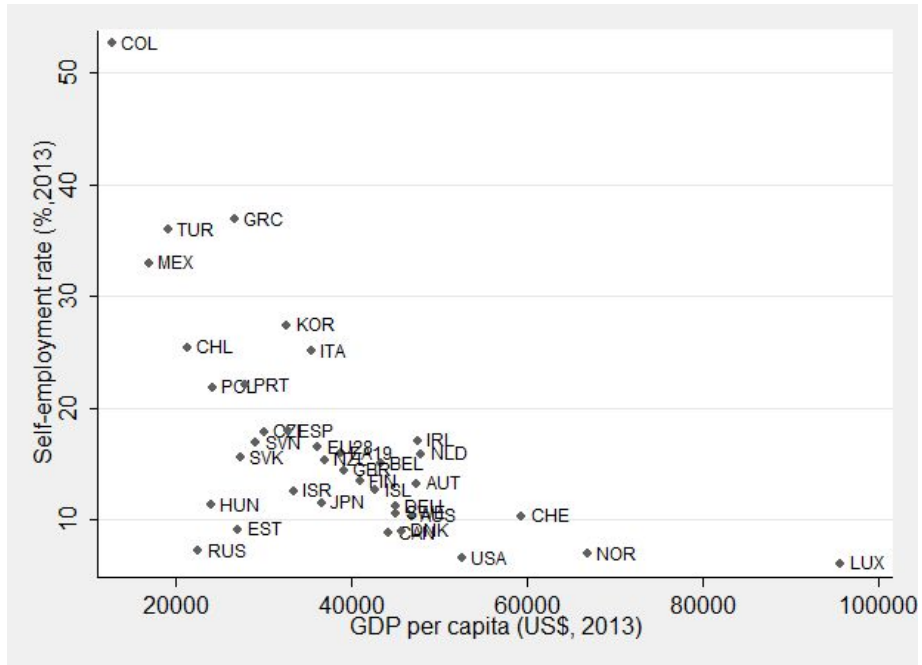
2014년 OECD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 종사 비율은 26.8%이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000년, 05년, 10년에 각각 36.8%, 33.6%, 28.8%를 기록하여 2000년대 들어 줄곧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자영업 비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000년의 17.7%에서 2011년 15.8%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나타내는 OECD 가입 국가는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콜롬비아, 터키,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의 5개국 뿐이다.

한국의 자영업 종사 비율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G7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 G7 국가의 평균 자영업 종사 비율은 2011년 기준 10.4%이다. G7 국가 중 이탈리아(25.0%, 2014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최근 10년간 15% 이하의 취업자만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자영업 비율은 2014년 기준 6.5%으로 G7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 가운데에서는 룩셈부르크(6.2%,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종사 비율은 해당 국가의 1인당 GDP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 비율과 1인당 GDP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우 하향 하는 분포를 나타낸다. 201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2천 6백 달러, 자영업 종사 비율은 27.4%로,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영업 종사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1 OECD 가입국의 2013년 1인당 GDP 대비 자영업자 비율



(출처: OECD Data)

제 2 절 국내 자영업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3만 명이며, 이 중에서 농업 및 어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54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 상태에 있는 인구를 임금 근로자와 비 임금 근로자로 구분하고, 비 임금 근로자를 다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OECD의 자영업 기준과 일치하는 통계청의 비 임금근로자 분류에 따라 정의하고 이하 분석을 진행한다.

연령별 취업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세 이상이다(표1). 농업 및 어업 종사자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30% 가량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취업자가 가장 높은 자영업 종사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30세 미만과 30-39세 연령층에서는 각각 6%대, 15% 내외의 취업자만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는 대표자 연령에 따른 개인사업체의 활동, 신생, 소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는 매년 대표자 연령별 기업 수와 조직형태별(개인/법인) 기업 수를 산업 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 연령별 기업체수가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별 개인사업체 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각 산업별로 조직형태가 개인 사업체인 비율을 해당 산업별 대표자 연령대별 기업 수에 곱하였다. 그 후 산업별로 추정된 대표자 연령대별 개인사업체 수를 각 연령대별로 합하여 대표자 연령별 개인 사업체 수를 얻었다.

이 개인사업체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분류하고 있는 비 임금근로자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제외된 협의의 자영업자 수(농림어업제외)와 유사하다. 2013년 8월에 조사된 비 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수는 468만 명으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조사된 개인사업체 수 490만 개와 비교했을 때 약 5%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위에 언급된 방식으로 계산된 개인사업체 대표의 연령별 분포는 자영업자 내 연령대별 분포와도 유사하다. 이에 근거하여 2013, 2014년도에 조사된 개인사업체 대표의 연령대별, 산업별 분포 및 사업체의 활동, 신생, 소멸 상황을 당시 노동시장에서의 자영업 진입 및 퇴출 현황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영업 진입과 퇴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활동중인 사업체수와 비교하였을 때, 30대 미만 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활동 사업체 중 약 40%는 신생 기업이었다. 또한 25%에 달하는 사업체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사업체 대비 신생 기업 및 소멸 기업의 비율은 대표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업(24.3%)이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및임대업(21.8%), 숙박및음식점업(15.1%), 운수업(10.7%) 순이다. 이 네 산업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개인사업체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체를 산업별, 대표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표자 연령에 따른 산업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도소매업과 숙박및음식점업에의 집중이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0대 이상 대표의 개인사업체 중 도소매업 및 숙박및음식점업 비율은 16.9%, 10.3%임에 비해, 30대 미만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중에서 두 산업은 각각 35.5%, 28.0%를 차지한다. 부동산및임대업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더 많이 운영된다. 30대 미만 대표의 개인사업체 중 부동산및임대업은 6.0%에 불과한 반면, 60대 이상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는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취업자 및 자영업 종사자 비율

	취업자	자영업자	비율	농임업제외 (비율)
계	26,141	6,829	26.1%	5,473 20.9%
15-29 세	3,990	251	6.3%	226 5.7%
30-39 세	5,674	870	15.3%	832 14.7%
40-49 세	6,651	1,742	26.2%	1,629 24.5%
50-59 세	6,001	2,096	34.9%	1,808 30.1%
60 세이상	3,826	1,871	48.9%	978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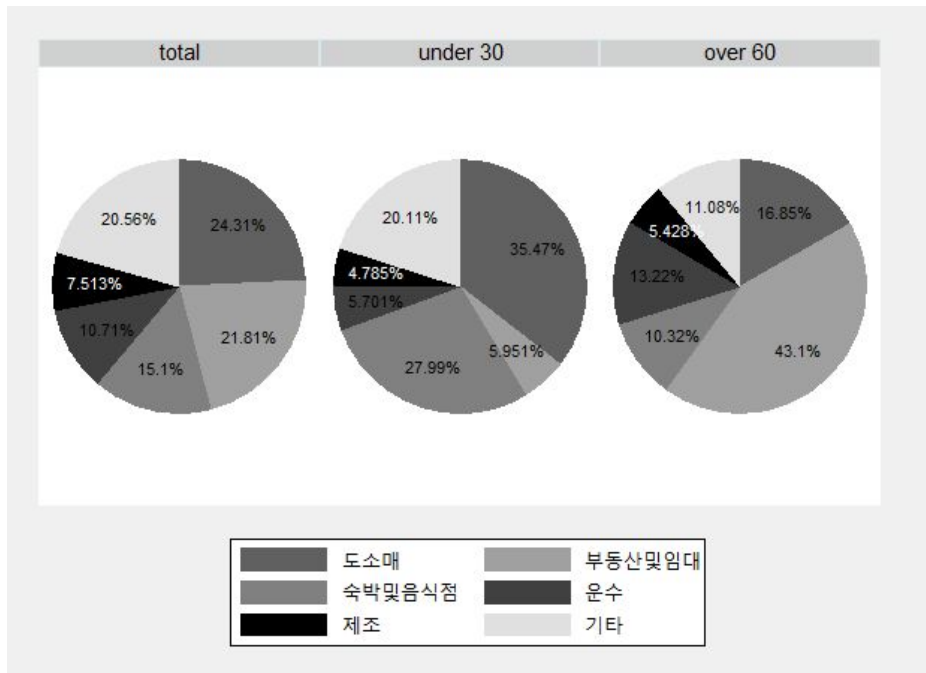
(출처: 201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표 2 대표자 연령별 활동, 신생, 소멸하는 개인사업체 수

	2013 개인사업체 수			2014	
	활동	신생	소멸	활동	신생
계	4,897	687	623	5,046	775
15-29 세	107	42	26	109	47
30-39 세	655	166	118	658	177
40-49 세	1,440	224	188	1,439	243
50-59 세	1,597	175	176	1,639	202
60 세이상	1,087	78	115	1,191	104
연령 미상	11	2	1	11	2

(출처: 2013, 2014년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단위: 천개)

그림 2 개인사업체 대표자 산업별 비율



(출처: 2013, 2014년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제 3 장 선행 연구

자영업 진입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는 Lucas(1978)를 들 수 있다. Lucas(1978)는 노동시장 참가자들이 각자 지닌 재능의 분포에 따라 기업 규모의 분포가 결정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노동자들 중 관리자적 재능이 우수한 자들은 기업가(관리자)가 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가가 노동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어, 시장 내 소규모 기업 대신 거대 기업이 비중이 늘게 된다. 이 연구는 선진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임금 노동자에 비해 재능 및 다른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자영업에 진출한다는 Lucas(1978) 등의 앞선 논의와 달리, Moore(1983)은 노동 시장에서 임금 근로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자영업에 진출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이 임금 근로자 시장에서 성 차별 또는 인종 차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다고 가정하고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자영업 집단의 성별, 인종별 임금 격차가 임금 근로자 집단의 격차에 비해 더 작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 내 자영업자 비율의 증감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Blau(1987)은 미국의 자영업 비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는 70년대에 나타난 미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노동자들의 경영 능력 향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Evans and Leighton(1989)는 자영업자의 증감률이 노동 시장 참가자들의 나이, 교육 수준, 산업별 분포 및 세금, 경기 변동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증가는 경제 구조적 변동에 의해 발생하며 개인의 기업가적 정신, 관리자적 재능의 개발과는 무관하다.

한편, Evans and Jovanovic(1989)는 Lucas(1978)를 발전시켜

기업가적 재능의 분포와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미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들은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유동성 제약에 직면함을 밝혔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8)은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영업 종사를 결정하는 요인을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역시 기업가들이 겪게 되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동성 제약에 초점을 맞추고, 유산 상속이나 증여의 규모가 클 수록 자영업에 더 많이 종사하게 됨을 보였다.

한국 노동 시장의 자영업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류재호·최호영(199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노동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자영업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9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자영업 종사 비율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에 집중하였다.

전병유(2003)는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을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력이나 직업력,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본인 및 부모의 자영업 경험 여부가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Heckman의 2단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얻은 자영업 기대 소득을 설명 변수로 삼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최강식·정진욱·정진화(2005)와 금재호·이인실(2011)은 자영업 소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최강식 등(2005)은 자영업 부문이 임금 근로 부문보다 소득편차 및 이질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 분위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소득 분위별 교육에 대한 보상이 임금 근로자에 비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금재호·이인실(2011)은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자영업 소득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자영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뚜렷이 나타나며, 자영업자 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여성, 고령, 저학력, 짧은 사업 기간, 작은 사업체 규모를 특징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 처할 확률이 높음을 보였다.

많은 연구들은 과거의 직업 경험이 자영업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Carrasco(1999)는 실업이 자영업 진입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스페인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고용 상태에 있던 사람에 비해 자영업에 진입할 확률과 사업체 운영에 실패하여 자영업을 그만 둘 확률이 모두 더 높음을 보였다. Evans and Leighton(1989)가 미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과거에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실업을 경험한 근로자, 낮은 임금을 벌어들이는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할 확률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자영업 관련 연구들은 직업 선택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Kuhn and Schuetze(2001)는 80년대와 90년대의 직업 전환 행렬 분석을 통하여 캐나다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증가한 이유를 남녀 노동시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Ahn(2013)은 매 기의 직업 선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의 영향을 받는 동태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 남성 자영업자가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같은 조건의 임금 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 4 장 데이터와 기초통계량

제 1 절 분석 데이터 소개

본 연구에는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개인용, 가구용,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활동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 1998년에 조사된 1차 자료부터 가장 최근에 조사된 17차 자료(2014년)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 중 자산, 연금 등 모형에 포함되는 일부 설명 변수가 조사되지 않은 1차 자료를 제외하고, 2차에서 17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성 노동 시장과 여성 노동 시장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남성 표본의 분석에만 집중하였다. 세대별 비교를 위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구분은 각각 조사 당시 만 35세 이하와 만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개인의 직업 상태는 매년 '일하지 않음(Nonemployment, N)', '자영업(Self Employment, S)', '임금 근로(Wage Employment, E)'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 중 '일하지 않음'은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미취업자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자영업'은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취업자라고 응답한 후,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자영업자'혹은 '무급가족종사자'라고 대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임금 근로'는 취업자이면서 동시에 종사상 지위 질문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임금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된다.

제 2 절 기초 통계량

표 3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직업 상태 별 표본 수를 나타내고 있다. 2차에서 17차에 걸친 관측 수는 약 187천 개로, 그 중 여성을 제외한 79천여 개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그 중 청년으로 구분된 만 35세 이하의 표본은 27,237개,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표본은 21,284개 이다. 두 기간 연속으로 직업 상태 비교가 가능하여 로짓 모형 추정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청년층 표본은 21,616개, 중장년층 표본은 16,265개 이다.

전체 표본의 절반 가량은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30% 가량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약 20% 정도가 자영업자로 조사되었다. 청년층에서 경우 임금 근로의 비율은 전체 표본과 유사하게 51%로 나타났으나, 자영업자의 비율은 8%에 불과하다. 5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직업 상태가 46.9%로 가장 많이 관측되었다. 근로 유형 중에서는 임금 근로(24%)에 비해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2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와 5는 두 기에 걸친 직업 상태의 전환 비율을 3X3 행렬로 나타내고 있다. 표 4는 T-1기의 직업 상태가 각기 다음 기에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표시하고 있으며, 표 5는 T기의 직업 상태가 직전 기에 어떤 상태에서 전환되어 왔는지 표시한다. 이 때 두 행렬의 대각원소는 두 기의 직업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을 나타 낸다.

표 4의 청년층 대각 원소는 전체 표본과 중장년 이상 표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에서 직업 간 전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1기에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던 청년이 다음 기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일을 시작하게 되며, 이는 자영업자로의 전환 비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청년층에서 두 기 연속하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을 확률은 연속하여 임금근로자로 일할 확률에 비하여 낮다. 그러나 T-1기에 자영업자로 조사된 청년이 다음 기에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은

5.7%로 임금근로자가 다음 기에 일을 하지 않을 확률 7.7%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율은 11.1%로, 청년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임금 근로 진입을 위한 전 단계로 자영업을 거쳐감을 볼 수 있었다. 표 5는 T기에 특정 직업 상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된 사람의 직전 기 직업 상태의 비율을 나타낸다. T기에 자영업자로 조사된 청년층의 1/4 가량은 직전 기에 자영업자가 아니었던 신규 자영업 진입자이다. 자영업 진입 전 가지고 있던 직업 상태는 일을 안 했던 경우보다 임금 근로자였던 경우가 더 많다. 청년층의 자영업 종사비율이 낮기 때문에, T기에 임금 근로자로 조사된 청년이 직전 기에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확률은 1.6%로 전체 또는 중장년 표본에 비해 낮다(표5). 요약하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지만, 자영업으로의 진입 및 자영업에서의 퇴출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상태 변경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중장년층의 직업 전환 행렬은 두 기 연속하여 일을 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90%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4). 반면 임금근로를 두 기 연속 지속할 확률은 84%에 불과하여, 다른 두 경우에 비해 낮다. T-1기에 자영업자로 조사된 중·장년이 다음 기에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은 6%로, 임금근로자가 다음 기에 일을 하지 않을 확률 1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표 5는 T기에 새로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조사된 중장년 중 1/3 가량은 직전 기에 자영업에, 2/3 가량은 임금 근로자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55세 이상 표본에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많음을 고려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장년이 임금 근로자보다 안정적으로 직업 상태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새로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비율 역시 청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을 하지 않던 55세 이상 남성이 직업을 가지게 될 때도 자영업자(1.9%)보다는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5.5%)이 여전히 더 높다. 하지만 청년층과 비교(각각 1.7%, 15.7%)했을 때 상대적으로 임금근로를 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직업 상태 별 표본 수

	전체 (%)	청년 (%)	중장년 (%)
일안함(N)	23,670 (29.9)	10,997 (40.4)	9,978 (46.9)
자영업(S)	18,224 (23.0)	2,235 (8.2)	6,184 (29.1)
임금근로(E)	37,367 (47.1)	14,005 (51.4)	5,122 (24.1)
전체	79,261	27,237	21,284

표 4 직업 상태별 전환 비율 (T-1기 기준)

전체 남성 표본			
	T기 직업 상태		
T-1기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84.5%	2.6%	12.9%
자영업(S)	4.4%	91.1%	4.5%
임금근로(E)	6.7%	2.7%	90.6%
청년(35세 이하) 표본			
	T기 직업 상태		
T-1기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82.6%	1.7%	15.7%
자영업(S)	5.7%	83.2%	11.1%
임금근로(E)	7.7%	2.5%	89.8%
중장년(55세 이상) 표본			
	T기 직업 상태		
T-1기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92.7%	1.9%	5.5%
자영업(S)	6.0%	91.9%	2.1%
임금근로(E)	13.8%	2.4%	83.8%

표 5 직업 상태별 전환 비율 (T기 기준)

전체 남성 표본			
T-1기	T기 직업 상태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86.2%	3.5%	8.3%
자영업(S)	3.4%	91.0%	2.2%
임금근로(E)	10.5%	5.5%	89.5%

청년(35세 이하) 표본			
T-1기	T기 직업 상태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89.6%	8.9%	13.4%
자영업(S)	1.1%	76.3%	1.6%
임금근로(E)	9.3%	14.8%	85.0%

중장년(55세 이상) 표본			
T-1기	T기 직업 상태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88.8%	2.9%	10.2%
자영업(S)	3.8%	95.1%	2.6%
임금근로(E)	7.4%	2.1%	87.2%

표 6은 다항 로짓 모델 추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 값을 세대별 전체 표본과 자영업 진입 집단으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자영업 진입 집단은 T-1기에 일 안함(N) 또는 임금 근로(E)로 조사되었다가 T기에 자영업(S)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표본을 의미한다.

조사 당시의 청년 집단의 평균 나이는 만 26세, 자영업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된 청년들의 평균 나이는 만 30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이 일어나는 중장년 집단에서는 자영업 진입 집단의 평균 나이가 63세로, 중장년 전체의 평균 나이 66세보다 더 낮다. 대학 교육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평균은 35세 이하 집단과 55세 이상 집단에서

모두 자영업 진입 집단과 전체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 당시 경험했던 임금 근로 일자리와 자영업 일자리의 기간을 나타내는 임금근로 경험, 자영업 경험 변수^②의 경우, 세대에 관계없이 자영업 진입 집단이 전체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을 갖는다. 즉 과거에 임금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일해본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14세 당시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평균값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중장년층의 자영업 집단은 부모가 자영업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청년 자영업 진입 집단의 평균은 전체 청년 집단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족과 관련된 변수의 평균값 역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영업 진입 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청년 자영업 진입자는 기혼일 확률이 높고, 가족 수와 가족의 연간 소득, 가족이 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갖고 있을 확률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다. 반면 중장년 자영업 진입자의 결혼 여부와 가족 구성원 수는 전체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족이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가족이 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갖고 있을 확률은 전체 평균에 비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 및 사회보험 수혜 여부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국민 연금 가입률의 경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모두 전체 집단과

^②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개인용, 가구용 자료 외에도 개인의 직업력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이 되기 전의 회고적 일자리를 포함하여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가졌던 일자리를 모두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조사 시점마다 개인이 임금 근로 일자리와 자영업 일자리에서 일했던 기간을 합친 변수를 생성했다. 예를 들어 2차에서 5차까지 4개 년도 동안 자영업 일자리를 가졌다가, 5차에 임금 근로 일자리를 새로이 가져 6차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의 6차의 자영업 경험 변수는 4, 임금근로 경험 변수는 2이다. 다시 말해 이 변수는 개인이 가졌던 일자리의 개수와 기간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자영업 진입 집단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 직역 연금의 경우 두 세대 모두 전체 집단에 비해 자영업 진입 집단의 가입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보험 수혜 경험에 관한 더미의 경우, 청년 집단에서는 직업 상태와 관계없이 수혜 경험이 1% 미만이다. 반면 연금 수령 연령대에 접어드는 중·장년 집단에서는 자영업 진입자가 사회 보험을 수혜 받은 적 있을 확률이 중·장년 전체 집단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은 세대별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표본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산업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 자영업자 가운데에서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중장년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농·임·어·광업에 종사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층에서의 자영업 진입 그룹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기혼일 확률이 높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자영업 진입 그룹의 평균 나이가 적고, 부모 역시 자영업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으며, 결혼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청년과 중장년 두 집단에서 모두 과거의 임금 근로와 자영업 근로 경험이 많고, 가족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자영업 진입 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설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표준 편차를 고려하여 자영업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를 찾아내려면 적절한 계량 모형의 설정 및 추정이 필요하다.

표 6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전체 남성		청년(35세 이하)		중장년(55세 이상)	
	전체	자영업진입	전체	자영업진입	전체	자영업진입
age	43.38	42.52	25.96	29.59	65.74	62.67
edu	0.392	0.408	0.562	0.570	0.160	0.161
empexp	5.325	5.578	3.742	4.409	4.702	5.049
selfexp	2.395	2.257	0.424	0.568	3.986	4.121
parents	0.027	0.035	0.044	0.045	0.019	0.059
married	0.654	0.748	0.276	0.500	0.881	0.889
famnum	3.476	3.494	3.546	3.391	2.947	2.957
faminc	3666	3224	3684	3136	3046	2666
famreal	0.247	0.239	0.206	0.174	0.341	0.426
natlpen	0.389	0.376	0.365	0.368	0.184	0.193
jobpen	0.084	0.012	0.061	0.010	0.075	0.024
insure	0.095	0.065	0.007	0.008	0.320	0.239

변수명	설명	변수명	설명
age	만 나이	famnum	가족 구성원 수
edu	대학교육 더미	faminc	가족 소득(만원/년)
empexp	임금근로 경험(년)	famreal	거주목적 외 부동산 소유 더미
selfexp	자영업 경험(년)	natlpen	국민연금 가입 더미
parents	14세 때 부모의 자영업 여부 더미	jobpen	특수직역연금 가입 더미
married	결혼 더미(1=기혼)	insure	사회보험 수혜 더미

표 7 세대별, 직업 상태별 산업 구분

	전체 남성		청년(35세 이하)		중장년(55세 이상)	
	임금근로	자영업	임금근로	자영업	임금근로	자영업
농림어업	0.022	0.208	0.028	0.081	0.028	0.414
제조업	0.271	0.117	0.304	0.096	0.149	0.090
전기가스수도건설	0.159	0.070	0.098	0.062	0.230	0.038
도소매업	0.097	0.221	0.143	0.260	0.039	0.167
숙박및음식점	0.024	0.069	0.040	0.117	0.009	0.052
운송	0.066	0.093	0.037	0.052	0.081	0.096
통신금융보험	0.052	0.023	0.054	0.035	0.020	0.015
부동산	0.032	0.023	0.009	0.012	0.137	0.028
공공행정	0.059	0.000	0.045	0.000	0.070	0.000
서비스업	0.218	0.174	0.241	0.283	0.236	0.100

제 5 장 모형과 분석 결과

제 1 절 실증 분석 모형

자영업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개인이 때
기 '일하지 않음(Nonemployment, N)', '자영업(Self Employment, S)',
'임금 근로(Wage Employment, E)'의 세 가지 직업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때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Random
Effect Multinomial Logit Model)의 형태로 추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각 노동시장 참여자는 세 가지 직업 상태 중 가장 큰 기대 효용을
주는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이 때, t기에 직업 k'를 갖고 있던 개인 i가
다음 기에 k를 선택할 때의 기대 효용은 설명 변수 벡터 X의 선형
함수로 표현된다. 기대 효용에는 경제학자에게 관측되지 않는 확률 변수
 α 와 ϵ 이 포함된다. 이 자료는 패널 데이터이므로, 같은 개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측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한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α 는 시간대별로 동일하고 개인별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속성이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또 ϵ 은 개인별, 시간대별로
독립적인 Extreme Type I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③

모형은 정태 모형과 동태 모형의 두 가지 형태로 추정하였다.

$$v_{it}^{k'k} = X_{it}\beta^{k'k} + \alpha_i^{k'k} + \epsilon_{it}^{k'k} \quad (1)$$

식 (1)은 정태 모형으로, 다음 기의 직업 상태 k를 선택할 때의
기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t기 당시의 직업 상태 k'에 따라 세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k'와 k가 각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므로,
발생 가능한 k'와 k 조합의 경우의 수는 총 NN, NS, NE, SN, SS, SE,

^③ STATA11의 부가 패키지인 gllamm 명령어를 사용하여 추정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gllamm 매뉴얼을 참고하였다.

EN, ES, EE의 아홉 가지이다. 전 기의 직업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NN, SS, EE의 효용을 0으로 표준화하고, 다음 기에 다른 두 직업 상태로 바꾸는 결정을 내릴 때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를 각기 추정하였다.

$$v_{it}^k = X_{it}\beta^k + D_{it}\gamma^k + a_i^k + \epsilon_{it}^k \quad (2)$$

식 (2)는 동태 모형으로, 식(1)에서와 달리 설명 변수에 t기의 직업 상태가 더미 변수 D의 형태로 포함된다. 이 때 더미 변수의 계수 γ 는 다른 설명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전기에 갖고 있던 직업이 다음 기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태 모형과 동태 모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동태 모형에 의해 추정된 γ 는 직업 전환 경향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정태 모형은 직전 기의 직업 상태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직업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제 2 절 정태 모형 분석 결과

표 8과 9는 각기 청년과 중장년의 직업 상태 결정을 임의 효과 다항 로짓 정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이의 경우 청년과 중장년 모두 일을 안 하다가 자영업에 진입할 때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추정되었다. 청년층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중장년층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영업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청년층에서 나이는 많을 수록 자영업과 임금 근로 진입의 확률을 모두 높이고, 직업을 그만 두거나 자영업에서 임금 근로로 전환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장년층에서 나이는 많아질수록 일을 할 확률을 낮추고 은퇴할 확률을 높인다. 그러나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에서 모두,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에 진입할 때에는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학 교육의 경우 자영업 진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신 청년 층에서의 대학 교육은 자영업을 그만두거나,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 임금 근로 직업을 가질 확률을 높인다. 이는 청년층 대졸 자영업자의 기대 효용이 같은 교육 수준의 임금 근로자가 갖는 기대 효용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중장년층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일을 안 하다가 임금 근로를 시작할 확률을 낮추고, 자영업을 그만두고 은퇴할 확률을 높인다.

14세 당시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중장년층이 일을 안 하다가 자영업에 진입할 때에 양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추정되었다. 반면 임금 근로 중에 자영업에 진입할 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혼 여부는 청년의 자영업 진입 확률을 높이는 변수로 추정되었다. 그 외 가족 구성원 수, 가족의 연간 소득, 가족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 여부 변수는 청년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중장년층에서 결혼 여부는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족 구성원 수는 일을 안 하던 중장년이 자영업에 진입할 때 음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추정되었다. 청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 중 하나는 거주목적 외 부동산 소유 여부 변수이다. 중장년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부동산 더미의 계수는 일을 안 하다가, 혹은 임금 근로를 하다가 자영업에 진입하는 두 경우 모두 매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정된다. 부동산 더미는 창업 시 필요한 자본 조달 능력의 대리 변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동성 제약이 자영업 진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여부는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의 직업 전환 추정에만 포함하였다. 또한 청년층에서는 사회보험 수혜 대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만 설명 변수로 포함하였다. 청년 층 추정 결과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특수 직역연금 가입 여부는 자영업

진입 확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층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사회보험 수혜 경험은 중장년이 일을 안 하다가 자영업에 진입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변수이며, 특수직역연금 가입 여부 역시 임금 근로자의 자영업 진입 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중장년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에 진입할 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사회보험 수혜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변수는 임금 근로자가 일을 안 하게 되는 퇴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퇴직 후에도 임금근로 시 누리던 삶의 질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④

과거의 자영업 또는 임금 근로 경험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청년층에서 과거의 자영업 경험은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로 추정되었다. 중장년층에게 과거의 자영업 경험은 비 근로와 임금 근로 상태에서 모두 자영업 진입의 확률을 높인다. 임금 근로자로 일한 경력이 길 수록, 중장년층 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아진다.

^④ 17차 가구용 자료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1500여 가구의 평균 수혜 액은 연간 721만원이다.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2.7명임을 감안하면, 사회보험 수령액은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크게 밀도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3, 14년의 월간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603,403
2인 가구	974,231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30,820

표 8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1

청년(35 세 이하)				
T-1기	T 기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N)편안(편안)	age		0.2018***	
	edu		0.1215	
	parents		0.0249	
	married		1.2726***	
	famnum		-0.0893	
	faminc		-0.0000	
	famreal		0.0488	
	empexp		-0.0152	
	selfexp		0.1068	
	_cons		-8.0423***	
	N	6,847	LL	-4,090
	(S)편안(편안)	age	-0.1648***	
		edu	0.4375**	
parents		0.7568		
married		-0.8659***		
famnum		0.1521*		
faminc		-0.0003***		
famreal		0.2209		
empexp		0.0322		
selfexp		-0.0377		
_cons		2.6632***		
N		1,976	LL	-1,020
(E)편안(편안)		age	-0.1394***	0.0083
		edu	0.0158	-0.0086
	parents	-0.6262*	0.2163	
	married	-0.9370***	0.5201***	
	famnum	0.1699***	-0.0006	
	faminc	-0.0001***	-0.0000	
	famreal	-0.1645	-0.0107	
	natlpen	-0.5572***	-1.1200***	
	jobpen	-1.9322***	-2.7525***	
	empexp	-0.0105	0.0021	
	selfexp	0.0857*	0.1835***	
	_cons	1.9844***	-3.3411***	
	N	11,946	LL	-4,080

* p<.1; ** p<.05; *** p<.01

표 9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2

중장년(55 세 이상)				
T-1기	T 기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N) 평안유무	age		-0.1435***	-0.1544***
	edu		-0.0348	-0.9102***
	parents		2.1621***	1.0280*
	married		-0.1969	0.1281
	famnum		-0.1677*	-0.1049*
	faminc		-0.0001	0
	famreal		0.8216***	-0.0014
	insure		-0.5558**	-0.1458
	empexp		0.0077	0.1347***
	selfexp		0.1131***	0.0452**
	_cons		5.8195***	6.8649***
	N	4,748	LL	-1,650
	(S) 자영업유무	age	0.0852***	
edu		0.9431***		0.1914
parents		-0.4196		-0.8381
married		-0.6427***		-0.1432
famnum		0.075		0.0238
faminc		-0.0001*		-0.0002***
famreal		-0.5323***		-0.4076**
insure		-0.118		0.2449
empexp		0.0188		0.1485***
selfexp		-0.0213		0.019
_cons		-7.5768***		0.5831
N		6,279	LL	-1,910
(E) 임금근로유무		age	0.0800***	-0.0022
	edu	-0.1891	0.0058	
	parents	-0.0416	-0.5503	
	married	-0.0205	-0.0897	
	famnum	0.001	0.0172	
	faminc	0	-0.0001	
	famreal	-0.0572	1.0074***	
	insure	-0.1406	-0.3034	
	natlpen	0.035	-0.1865	
	jobpen	0.4172**	-1.0615*	
	empexp	-0.0308***	-0.0528**	
	selfexp	-0.0347**	0.1285***	
	_cons	-6.4079***	-3.2899**	
N	5,052	LL	-2,430	

* p<.1; ** p<.05; *** p<.01

제 3 절 동태 모형 분석 결과

표 10과 11은 설명 변수에 T-1기의 직업 상태 더미를 포함한 동태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은 추정된 계수를, 11은 각 설명 변수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s)를 나타내고 있다.

동태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의 방향은 정태 모형의 추정 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는 편이다. 나이, 대학 교육 등 기본 인적 변수, 개인의 직업 경험 등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정태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되었던 일부 변수는 동태 모형에서 유의미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예를 들어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계 효과는 설명 변수의 단위당 변화가 각 직업 상태를 선택할 확률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의미한다. 자영업 종사 여부가 다음 기에 계속하여 자영업을 선택하게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영업 종사 더미의 한계 효과를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청년층(0.2002)에 비해 중장년(0.9406)의 자영업 지속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임금 근로 지속 정도를 의미하는 임금 근로 더미의 한계 효과와 비교해보면, 청년층에서는 자영업에 비해 더 크게(0.4309) 추정된 반면, 중장년에서는 더 작게 나타난다(0.7031). 또 청년층에서는 자영업 후 실직(-0.3214)보다는 임금근로 후 실직(-0.4671)의 한계효과가 더 낮은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임금근로 후 실직할 한계효과(-0.9677)에 비해 자영업자가 실직할 한계효과(-1.1858)가 더 낮다.

추정된 결과는 청년 자영업자의 고용 안정성이 같은 세대의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반면, 중장년층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 안정성을 누릴 수 시사한다. 또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지속과 관련된 더미 변수의 절대값이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에 비해 모두 작게 추정된 것은 청년층의 직업 변동성이 중장년층에 비해 큼을 의미하며, 이는 모형이 예측하는 직업 전환 비율(표 12)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표 10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3

	청년(35세 이하)		중장년(55세 이상)	
	자영업(S)	임금근로(E)	자영업(S)	임금근로(E)
selfdummy	4.0979***	0.6397***	5.6215***	1.2435***
wagedummy	0.7418***	2.2740***	1.5817***	3.5647***
age	0.2026***	0.1659***	-0.0835***	-0.1038***
edu	-0.0549	0.2237***	-0.4487***	-0.1897**
parents	-0.0615	-0.1948	0.9907***	0.5599**
married	1.1414***	0.8738***	0.3572**	0.086
famnum	-0.1220***	-0.1433***	-0.0985***	-0.0570*
faminc	0.0000***	0.0000***	0.0000	0.0000
famreal	-0.0189	-0.0514	0.6119***	0.0000
insure			-0.0195	0.1186
empexp	-0.0163	0.0078	-0.0262**	0.0754***
selfexp	0.0710*	-0.1348***	0.0746***	0.0292***
_cons	-7.8143***	-4.6473***	1.7057***	4.0977***
N	21,616		16,265	
LL	- 9,670		- 6,240	

* p<.1; ** p<.05; *** p<.01

표 11 다항 로짓 모형의 한계 효과

	청년(35세 이하)			중장년(55세 이상)		
	N	S	E	N	S	E
selfdummy	-0.3214	0.2002	0.1212	-1.1858	0.9406	0.2453
wagedummy	-0.4671	0.0362	0.4309	-0.9677	0.2646	0.7031
age	-0.0413	0.0099	0.0314	0.0345	-0.0140	-0.0205
edu	-0.0397	-0.0027	0.0424	0.1125	-0.0751	-0.0374
parents	0.0399	-0.0030	-0.0369	-0.2762	0.1658	0.1104
married	-0.2213	0.0558	0.1656	-0.0767	0.0598	0.0170
famnum	0.0331	-0.0060	-0.0272	0.0277	-0.0165	-0.0112
faminc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famreal	0.0107	-0.0009	-0.0097	-0.1024	0.1024	0.0000
insure				-0.0201	-0.0033	0.0234
empexp	-0.0007	-0.0008	0.0015	-0.0105	-0.0044	0.0149
selfexp	0.0221	0.0035	-0.0255	-0.0182	0.0125	0.0058
N		21,616			16,265	

(한계 효과는 세대별 평균 값에서 계산되었다.)

표 12 다항 로짓 모형의 직업 전환 예측 비율

청년(35세 이하) 표본			
T기 직업 상태			
T-1기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45.93%	4.46%	49.61%
자영업(S)	11.25%	65.72%	23.03%
임금근로(E)	8.55%	1.74%	89.71%

중장년(55세 이상) 표본			
T기 직업 상태			
T-1기	일안함(N)	자영업(S)	임금근로(E)
일안함(N)	89.1%	2.7%	8.3%
자영업(S)	10.4%	86.3%	3.3%
임금근로(E)	22.6%	3.3%	74.1%

(전환 예측 비율은 세대별 평균 값에서 계산되었다.)

제 6 장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세대별 자영업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남성 노동시장 참여자를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별로 자영업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직업이 다음 기 직업 선택을 위한 설명 변수에 포함되는 동태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청년층에서는 임금 근로자가, 중장년 층에서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직업 상태를 유지함을 밝혔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같은 세대의 임금 근로자에 비해 빈번하게 퇴직 또는 임금 근로로의 전환을 경험한다. 반면 중장년층 자영업자에게 자영업 진입은 임금 근로 시장에서 퇴장한 이후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하기 전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분석에는 표본 내에서 한 개인이 여러 번 관측되는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임의 효과 다항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임의 효과가 반영되는 개인적 특성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형태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정하였고, 로짓 모형 추정 시 수반되는 IIA(The 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 역시 지니고 있다. 표 12가 나타내는 모형의 직업 전환 예측 비율과 표 5에 나타나는 실제 직업 전환 비율과의 차이는 이러한 한계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된다. Ahn(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인적 특성을 설명 변수의 선형 결합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이 결합된 형태로 상정하고 추정을 진행한다면,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의 편의를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로짓 모형이 갖고 있는 IIA 가정을 완화할 수 있는 Nested Logit Model과 같은 대안적인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재호, & 이인실. (2011). 자영업 매출과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103-140.
- 류재우, & 최호영. (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09-140.
- 박상인, 조성진, 김지원, 최은아, & 김민지. (2015). *연금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5 연구보고서). 서울: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자금안내. (n.d.). Retrieved May 24, 2016, from http://job.seoul.go.kr/www/establish/establish-fund_1.jsp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최강식, 정진욱, & 정진화. (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Ahn, T. (2013). *The employment dynamics of less-educated men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self-employmen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 Blau, D. M. (1987). A time-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445-467.
- Carrasco, R. (1999). Transitions to and from self-employment in Spain: an empirical analysi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3), 315-341.
- Evans, D. S., & Boyan Jovanovic (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8-827.

Evans, D. S., & Leighton, L. S. (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Evans, D. S., & Leighton, L. S. (1989). The determinants of changes in US self-employment, 1968-1987. *Small Business Economics*, 1(2), 111–119.

Hausman, J., & McFadden, D. (1984). Specification tests for the multinomial logit model.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219–1240.

Kuhn, P. J., & Schuetze, H. J. (2001). Self-employment dynamics and self-employment trends: a study of Canadian men and women, 1982–1998.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e*, 34(3), 760–784.

Lucas Jr, R. E. (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508–523.

McFadden, D. (1974). The measurement of urban travel deman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4), 303–328.

Moore, R. L. (1983). Employer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self-employed worker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6–501.

OECD (2013), “Self-employment among the youth and seniors” , in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ntrepreneur_aag-2013-21-en

OECD (2016),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fb58715e-en (Accessed on 22 March 2016)

Train, K. E. (2009).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the Self–Employment Choice : Comparison among Different Age Cohorts

Kim, Minji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choice among different age cohorts in the Korean labor market. Using the data from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I utilize a multinomial logit model to empirically test individual choice among non–employment, self–employment, or wage–employment. The result reveal that age, college education, parents' self–employment history, and ownership of real estate have differing effect on self–employment choice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In addition, by incorporating the dynamics in the model, I show that the wage–employed have greater job stability than the self–employed in the young age group, whereas it is vice–versa for the elderly.

Keywords : self–employment, youth labor market, elderly labor market, multinomial logit model

Student Number : 2014–22288